

베트남 전쟁시 호이안 시(市) 전투교훈

崔 七 鎬

(전 단국대 사회과학대학장 · 해병 대령(예))

1. 서 론
2. 추라이에서 호이안 지역으로 부대이동
3. 1968. 1. 30, 구정 전일 작전
4. 호이안 시 외곽 탐색작전(1968. 1. 30~2. 1)
5. 호이안 시가지 전투(1968. 2. 6~2. 7)
6. 결론(전투교훈)

본인은 베트남 전쟁의 호이안(Hoi An) 시(市) 전투시 그 전투를 여단장으로 부터 위임받아 단독으로 치른 당시 청룡부대 제3대대장이었다. 본인은 1968년에 있었던 호이안 시 탈환의 전투기록 공개를 지난 30여년 동안 망설였다. 그 이유는 이 기록의 공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을 걱정하고, 또한 본인의 공적을 내세우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호이안 시 전투는 파월 청룡부대의 유일한 북베트남 정규군과의 전투로 시가지(市街地)에서의 아군의 소부대 공격전투(반격)이었다. 그러나 이 전

투는 청룡부대의 괴룡작전에 묻혀버려 과월한국군 전사(戰史)에 수록되지 못했다. 본인은 한국군 전사에 밝혀지지 않은 호이안 시 전투사를 진솔하게 기록하였다.

호이안 시는 청룡부대 전술책임지역(TAOR)의 중심지이고, 광남(Quang Nam) 성(省)의 성청(省廳) 소재지인 유일한 도시였다. 이 도시는 1968년 구정(1. 30), 공산군의 총공세시 동년 1월 30일~2월 7일까지 북베트남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호이안 도심을 장악한 북베트남군이 언제 밀려났는지?, 언제 괴멸되었는지?, 요컨대 “청룡부대 전술책임지역이 언제 정상으로 회복되었는지?”를 이 글이 밝혀 준다.

호이안 시가에서의 8시간(1968. 2. 6, 12:30~20:00)의 혈전(포화 공방전투)과 14시간(동년 2. 6, 20:00~2. 7, 10:00)의 피아 밀착된 상태에서 벌어진 끈기전투(한국군과 북베트남군의 氣싸움)는 한 편의 드라마로 연출하기도 힘들만큼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전투사가 무엇보다 한국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호이안 시가전투에서 전사한 명령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전투에 기여한 동참해준 숨은 영웅들에게 칭송과 위안의 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베트남공화국군(당시 북베트남군)을 적군으로 표현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1. 서 론

남베트남 광남(Quang Nam) 성의 성청 소재지인 호이안(Hoi An) 시는 하노이 - 다낭 - 사이공으로 이어지는 1번 도로 축선상의 다낭(Da Nang) 남단 20km에 위치한 인구 1만 여명의 상업도시였다. 호이안 시는 1968년 1월 30일 구정(舊正), 북베트남군의 대공세시 북베트남 육군 제2사단 예하부대(단대호 미확인)에 의해 9일(1968. 1. 30~2. 7)동안 강점되었다. 적은 구

정 당일 청룡부대를 압박하면서 호이안 시 주둔 남베트남 군 공병대대와 1개 경비중대를 격파하고, 시가를 점령하였다.¹⁾

호이안 시는 청룡부대 전술책임지역의 중심부이며, 유일한 도심지였다. 청룡부대 본부는 호이안 시 북방 3km에 위치하여 1968년 구정 당일 부대본부 자체가 북베트남군의 위협하에 놓이게 되었었다. 당시 청룡부대는 추라이(Chu Lai)지역으로부터 이동한 후 부대정비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의 위협은 가중되었었다.

청룡부대본부는 호이안 시를 강점한 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고, 제3대대를 제외한 제1·2·5대대는 자체 방호준비에 바빴기 때문에 전투기동대대 운용이 부자유스러웠다. 또한 미 해병 제3상륙군도 적과 격돌하고 있어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형편도 아니었다. 반면 제3대대는 여단의 선발대로 1967년 12월 22일, 즉 1968년 구정공세 1개월 전에 호이안 지역에 도착하여 현지 지형에 다소 익숙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제3대대가 여단의 호이안 시 반격부대로 투입되어 2일간의 시가 전투가 전개되었었다.

반격임무를 맡은 제3대대장은 포병과 항공지원의 우선권 보장, 전차 및 LVT 각 1개 중대의 지원을 미 해병 제3상륙군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미 해병 전차 1개 소대와 여단 및 남베트남 군에서 각각 1개의 소총중대가 대대에 배속되었었다. 이 결과 제3대대는 소총 4개 중대(남베트남 군 1개 중대 포함)와 미 해병 전차 1개 소대(5대)의 전투력으로 2일 동안(1968. 2. 6~2. 7)간 호이안 시가지에서 북베트남군 제2사단의 예하부대와 격돌하였다.

당시 제3대대장이었던 본인은 본인이 소장한 전투일기(장)를 토대로 당시의 전투상황을 전투수기 형식으로 서술하였다.²⁾

1) 국방부, 『과월한국군전사(제4권)』, 1972, p. 42.

2) 호이안 시가지 전투는 북베트남 정규군에 대한 청룡부대 최대의 공격전투(1968. 2. 6~2. 7)였으나, 과월전사에는 그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2. 추라이에서 호이안 지역으로 부대이동

광남성 호이안 지역의 기후는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5개월간 북동계절풍의 영향권이지만, 1968년 구정 전후는 한국의 초여름처럼 덥고, 습도(濕度)가 높았다. 해마다 11월말부터 2월초까지는 우기(雨期)였으나, 1967년 11월초에는 1주간의 장마가 있었을 뿐 1968년 1~3월간에는 장마가 없었다. 보병부대의 기동에 가장 적절한 계절이었다. 당시 남베트남 공화국의 기관과 아군의 모든 부대가 미군의 기상예보에 의존했는데, 미군의 기상예보는 빈번히 빗나갔다. 작전시 전투부대는 항상 비가 오는 상황에 대비해야만 했다.

호이안 지역은 긴 해안선을 끼고 있었지만, 어업은 폐업상태이고, 농업과 상업에 생업을 의존하고 있었다. 호이안 도심 주민들은 농촌지역에 비해서 생활의 질이 높아 보였으며, 아군 부대에 비교적 동조적이었다. 도시의 여인들은 얇은 화장이 생활화되어 있으나, 농촌지역 부인들은 군인들의 성폭행이 두려워 치아를 검정색으로 물들이고 다녔다.

1967년까지 아군의 작전은 착실히 진척되었다. 아군 평정지역은 확대되고 아군 동조 주민의 수는 늘고 있었다. 주월 미군사령부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1967년도에 적군의 병력손실은 1965~1966년에 비해 현저히 증대되어, 적 기동대대의 30%정도는 전투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아군의 작전 진척에도 불구하고, 아군의 승리로 전쟁이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은 누구도 피력하지 못했다. 당시 주월 미군사령부가 주장했던 1967년 수준과 비교하여 배가된 병력투입과 배가된 전략폭격 등은 미국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워싱턴에서 아군과 적, 피아간의 전쟁지표·지수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남베트남전 종식에 대한 해답을 구했더니, 그 대답은 “전쟁은 이미 미군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회상된다.

호이안 시가는 상황(狀況)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도약의 징후가 역력하였다. 호이안시 중심가에는 당시 서독 가톨릭 재단에서 경영하는 독일 종합 병원이 독일인 의사와 간호원(수녀)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 독일 병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진지하게 봉사하고 있었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그 병원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었다.

호이안 지역 내 적의 활동은 저격, 매복전투와 테러가 간간히 자행될 뿐 비교적 평온하였다. 다만 피아간 매복전투의 규모가 커져 가는 경향이 있었으며, 적의 물자 이송은 주로 1번 국도를 중심으로 동으로부터 서쪽 산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호이안 지역은 남베트남의 지상군 제1군단지역으로 미 해병 제3상륙군 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미 해병 제1사단과 제3사단, 비행사단, 그리고 아메리칼 사단(TF OREGON)과 당시 남베트남공화국 육군 제1군단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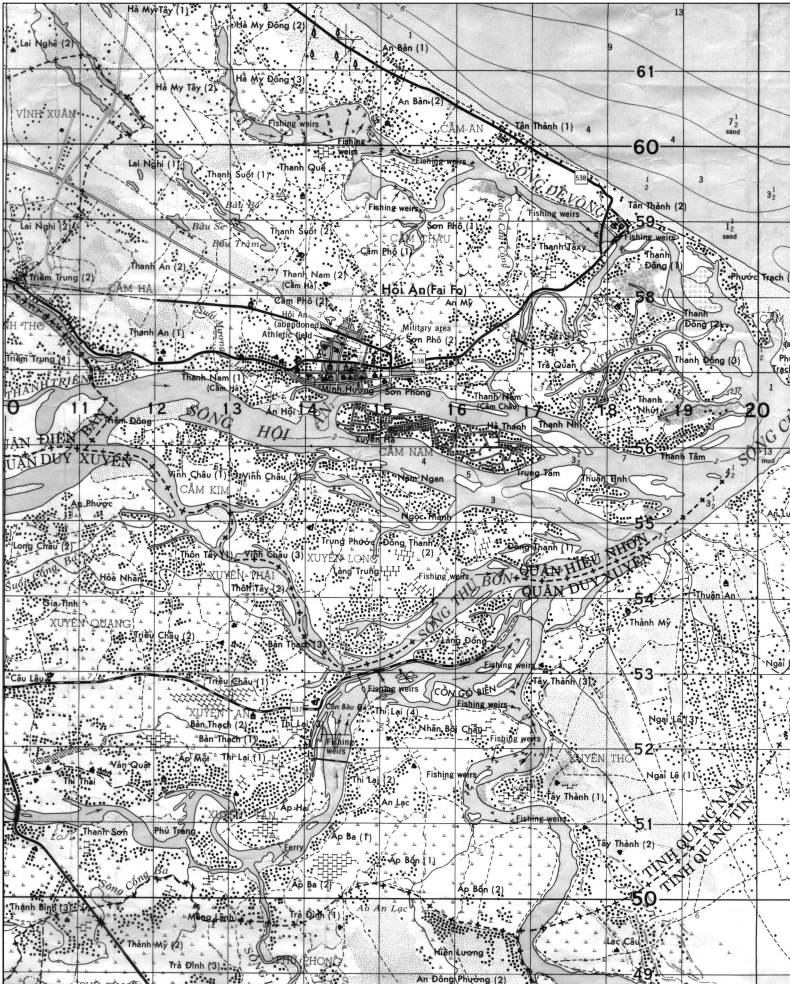
제1군단 지역은 당시 북베트남공화국 국경에 접한 팡뜨리(Quang Tri) 성으로부터 광응아이(Quang Ngai)에 이르는 5개성으로 호이안 시가 속한 팡남 성은 중부지역이다. 호이안 시는 당시 남베트남 공화국 제2의 도시인 다낭(Da Nang)의 지정학적 이유와 국경지역의 상시화 된 격전의 분위기에 놀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 긴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되고 있었다.

1965년 9월, 남베트남의 중남부 항구도시인 Cam Ranh항에 상륙한 청룡 부대는 그 후 뚜이호아(Tuy Hoa) - 추라이 - 호이안 지역으로 축차적으로 북상하면서 작전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 갈수록 적의 저항이 증대되었으며, 북베트남의 정규군과 조우할 가능성도 증대되었다. 때문에 호이안 이북지역은 지상작전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었다.

추라이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청룡 제3대대를 주축으로 하여 청룡부대 선발대로 편성된 1,100명 규모의 병력 및 장비는 1967년 12월 22일, 호이안 지역을 향해 공중과 해상으로 병행이동 되었다. 제3대대 본부와 5개

소총중대(2개 중대 배속)는 공중으로 당일 14시에 이동되어, 미 해병 제5 연대 제1대대로부터 전술책임지역을 인수하여 급편 방어 편성에 돌입하였다. 해상제대 이동은 24시간 뒤에 완료되었다.

<그림 1> 호이안(Hoi An) 주변 지형도



호이안시 외곽에 위치한 제3대대의 인수지역은 방어진지가 없는 공허한 공간지대여서 생소하였다. 미 해병 제3상륙군은 항시 공격기동 태세로 부대가 운용되어, 주일 한국군의 전술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대대장은 급편 방어진지 구축을 결행하였다.

1967년 12월 27에는 호이안 지역에 도착된 청룡부대 병력이 1,6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대대장은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벅찬데 미 해병 제5연대장은 매일 적의 출몰 또는 가상 주둔지역에 대한 공격전투를 권고해 오는 바람에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부대안전과 지형을 익히기 위한 탐색작전은 지속되었다.³⁾

제3대대장은 청룡부대장의 작전 지시와 미 해병 제3상륙군 제5연대장의 작전독려 사이에 끼여 전투보다 힘겨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이때 제3대대는 미 해병 제5연대장의 실질적인 작전통제하에 있었지만, 청룡부대장의 지휘관할을 일탈할 수 없었고, 현지 대대장의 판단으로 볼 때도 미 해병 제5연대장의 작전지시는 대체로 무모하였기 때문이었다.

3. 1968. 1. 30, 구정 전일 작전

1968년 1월 12일(금), 청룡부대 전방 지휘소가 제3대대본부에 개설되고, 제3대대에 뒤이어 호이안 지역으로 이동한 제1·2·5 대대와 포병대대(증강)는 방어진지 구축에 여념이 없었다. 제3대대장은 부대지휘 책임의 부담을 덜자마자, 청룡부대 입성 환영행사로 힘든 하루를 보냈다. 청룡부대장 일행의 추라이 지역 환송인파는 “단 50여명이었다”고 들었다. 공교롭게도 당일 호이안 공설 운동장에 개설된 청룡부대 환영행사는 계획된 시간인 15시까지 겨우 50여명이 모였다. 행사를 준비한 대대장은 난감하여 대회를 1

3) 국방부, 앞의 책, 부도 5호(청룡부대 비룡작전 경과 요도, 1967. 12. 22~31).

시간 연기하였다. 그리고 성장(도지사)의 협조를 받아 동분서주한 결과 2,000명이 넘는 환영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제3대대는 1968년 1월 13일, 진지를 여단 본부에 인계하고, 호이안시 서남 외곽지역의 새로운 진지로 이동되었다.⁴⁾ 신진지에 진입한 대대는 진지구축시 주월한국군 사령부 야전회보 제8호에 의거 일선 엄체호를 독으로 연결시켜 성벽을 쌓았다. 그 후 야간에는 연일 적의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진지 시설이 워낙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호시설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대대작전은 지역탐색보다 포병공격이 더욱 유효하였다.

1968년 1월 24일, 제3대대는 진지구축이 완성에 가까워지자, “적의 출몰 지역으로 재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재고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 이유는 지시된 제3대대의 신 주둔지는 도로도 없고, 평정 대상인 민간인도 없는 고립된 늪지대일 뿐 아니라, 청룡부대 자체의 안정을 기하려면 3개월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는 구정 휴전과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적의 활동은 정치적이고, 공세적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다행히 제3대대의 재 이동은 보류되었다. 때마침 1968년 1월 25일 주이쑤언(Duy Xuyen) 군수와 면장 일행이 대대를 방문해 있는 동안, 예고 없이 여단장이 대대를 방문하여, 대대의 재 이동은 없던 일로 결정이 났다. 그리고 여단의 부대이동은 1968년 1월 28일, 후속제대가 도착됨으로서 완결되었다.

1968년 1월 28일, 제3대대 전술지휘소는 17시에 제10중대기지인 히에우논(Hieu Nonh) 군 지역으로 이동되어 다음날인 1월 29일, Duy Xuyen 동부 해안 상륙작전에 대비하였다. 이 지역은 청룡부대 전술책임지역 동남단으로 미 아메리칼 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이었으며, 팡남 성과 팡틴 성의 성계(省界)이기도 했다. 제3대대 상륙제대는 제10·11중대로써 미 해병 제3상륙군으로부터 지원된 LVT 1개중대에 분승하여 07:00경, 목표 해안에 상륙되었다.

4) 국방부, 앞의 책, 부도 제5호(제3대대 신진지 이동 및 작전 요도) 참조.

제3대대는 최종 목표까지 LVT의 기동력과 기갑력을 활용, 진격하였다. 대대는 당일 05:00~17:00간에 15km를 기동하였다. 대대의 진출간 적의 저항은 없었다. 전투지역은 황폐하고 민간인들은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많이 눈에 띄었다. 상부로부터 받은 정보는 빗나갔고, 적과의 접촉은 전무하였다.

대대는 의무반을 동원, 의료봉사활동을 폈다. 대대는 당일 18:00경 임시 휴전 발효 예정시각에 대비 17:00부로 제1일차 작전을 종료하고, 야중에 대비하여 급편 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⁵⁾

대대장은 당일 18시부터 36시간 임시휴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캔맥주를 1인당 1개씩, 그리고 샌드리 팩(위문용으로 미국으로부터 지원된 과자, 담배 등이 포함된 패키지)을 1개 분대에 1개씩 지급하였다. 대대장은 임시 휴전간에 부대원들에게 해수욕도 시키고, 충분히 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4. 호이안 시 외곽 탐색작전(1968. 1. 30~2. 1)

1968년 1월 30일 새벽, 대대장은 “구정 휴전은 취소되고, 호이안 시내에 북베트남 정규군(2개 대대)이 남베트남 육군 1개 중대(호이안 시 경비대)와 1개 공병대대를 유린하고, 호이안 시를 강점했다”는 정보를 여단 본부로부터 접수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Duy Xuyen 동부 해안탐색 작전을 중단하고, 즉각 여단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대는 10:00경 LVT에 분승하여 상륙했던 해안을 따라 북상한 후 호이안 시 동부 해안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LVT 중대는 미 해병 제3상륙군에 복귀되었다.

그리고 당일 14:00경, “제10중대는 호이안 시 동쪽인 Hieu Nonh 군청

5) 국방부, 앞의 책, 부도 제14호 참조.

우측방 동북으로, 제11중대는 호이안 시 동측방 반도를 따라 북상 탐색하라”는 여단본부 작전지시를 받았다. 대대전방 지휘소는 2개 중대의 진출이 관측되는 감제고지에 설치되었다.⁶⁾

구정당일 제11중대는 접적이 없었으나, 작전지역에 남아 있는 민간인 130명을 색출하였다. 민간인들의 대부분은 노약자와 부녀자,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들이었다. 이들은 다음날 무사히 호이안 시 피난민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제10중대의 탐색전투는 접적 없이 종료되었다.

1968년 1월 31일 05:00경, 제10중대는 적 30여명의 이동을 발견하여 추격하였으나, 추격속도가 느려 놓치고, 매복지점으로 재진입간에 적 부대(규모미상)와 조우하여 적 10명을 사살하고, 소총 2정을 노획하였다. 이어서 제10중대는 탐색을 계속 하다가 적의 매복부대에 걸려 일시에 40명(전사 6, 부상 34)의 사상자를 냈다. 이때 희생된 병력은 늪지대를 피해 협소한 농로를 따라 진격하다가 적의 용이한 목표가 되었다. 대대장은 즉각 여단 특공 중대를 배속 받아 적의 매복지역을 포위하여 압박하였으나 5명(전사 1, 부상 4)의 사상자를 추가 발생하였다. 대대장은 소총중대의 공격을 자제하고, 105밀리 포병과 대대의 4.2인치, 81밀리 박격포, 그리고 항공기의 폭격으로 적을 공격하였다.

1968년 2월 1일, 제3대대는 여단으로부터 제1대대 제2중대와 제5대대 제27중대를 배속 받아 소총 4개중대로 전일의 포위망을 압박하자, 적 100여명이 탈출하여 도주를 시도하였다. 이때 대대의 박격포와 105밀리 포병공격으로 격파하였다.⁷⁾

이 전투결과 적 200여명 사살했으나, 제10중대와 여단 특공중대의 피해도 컸다. 그때의 인명손실은 전사 7명, 부상 38명이었다. 그리고 제3대대의 호이안 시 동부 외곽전투는 종료되었다. 작전간 대대에 배속되었던 제27중대와 제1대대 제2중대는 배속 해제되고, 제10중대는 그들 중대의 방어진지

6) 국방부, 앞의 책, 부도 제14호 참조.

7) 국방부, 앞의 책, 부도 제14호 참조.

에, 제11중대와 대대에 새로 배속된 제1대대 제3중대는 호이안 시 동북부에 여단본부의 남단을 보호하기 위해 재배치되었다.

5. 호이안 시가지 전투(1968. 2. 6~2. 7)

(1) 공격 기동 계획과 공격을 위한 조치

제3대대장은 호이안 시 동부 제10중대 내에 설치된 대대전방 지휘소에서 1968년 2월 5일 08:00경, 여단 본부로부터 “적 1개 연대(단대호 미상)가 호이안 시 남쪽 쉐엔롱(Xuyen Long)지역에서 송호이(Song Hoi)(江)를 도하, 쉐엔하(Xuyen Ha) 섬을 거쳐 1968년 1월 30일, 새벽 호이안 시에 침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호이안 시 남단의 호이 강은 간조시 장비 없이 도하가 가능할 만큼 수심이 얕았다. 당시 아군은 “호이안 시가 1968년 구정 이후 적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그 부대의 규모와 단대호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⁸⁾

1968년 2월 5일,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적의 규모는 연대급(2개 대대)으로 확인할 만 했다. 그 침투부대가 베트남공(VC) 부대인 경우는 360명, 북베트남군 제2사단 예하부대인 경우 800~900명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호이안 시내에 침투된 병력은 360~900명으로 판단되었다.⁹⁾ 그리고 1968년 1월 30일, 이후 호이안 시에 침투한 적이 “아군을 포병과 박격포로 공격했다”는 정보는 없었다. 침투한 적이 호이 강을 도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8) 국방부, 앞의 책, p. 46.

9) 미 해병 제3상륙군 사령부에서 확인된 1976년 12월 31일, 현재 북베트남군 제2사단 전투서열은 제1연대 1,530명, 제2연대 835명, 제3연대 925명, 368 B포병연대 1,400명, 베트남 지방군 V25대대 280명이었다. 그리고 1968년 1월 31일 현재 확인된 북베트남군 제2사단 병력은 7,400명이었다.

적 부대는 경보병 부대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적은 아군 보병부대의 기동이 어려운 쭈엔하 섬을 거점으로 호이 강을 비롯한 개천과 늪지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호이 강 이남의 넓은 농어촌 지역은 적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호이안 시 지역의 지형특징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호이안 시가지 주변지역은 남중국해에 연한 송꾸아다이(Song Cua Dai)(江), 송호이(Song Hoi)(江), 송두본(Song Thu Bon)(江) 등 3개의 강과 지류 하천이 20여 개에 이르고 그 하천 인근지역은 늪지대이다.¹⁰⁾ 둘째 도심지역은 바둑판처럼 4차선·2차선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직선으로 뻗어 있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다.

1968년 2월 5일, 제3대대는 여단장의 명에 의해 호이안 시내 적의 거점인 동부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공격일시는 1968년 2월 6일 07:00였다. 대대장은 이 전투가 청룡부대의 명운과 나아가서는 한국의 국가적 영욕을 가름하는 전투임을 예하 소총부대에 다짐하고, 동시에 여단 본부에 제3대대를 공격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항공지원의 우선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전차 1개 중대와 LVT 1개 중대의 배속을 건의하였다. 그 결과 미 해병의 전차 1개 소대(5대)가 공격개시 이전에 대대전방 지휘소에 도착되었다.

대대장은 제10중대를 호이안 시 동측방 차단부대로 제11중대와 제3중대, 전차 소대를 돌격부대로, 배속된 남베트남 군 1개 소총중대를 예비대로 편성하였다. 대대는 D-day, H-hour에 적 방어부대의 의표를 찌르는 신속한 기동계획을 완성하였다. 이 전투의 작전 개념의 초점은 돌격부대가 북베트남 정규군이나 베트남 지방군 전투대대보다 일층 더 빠르게 기동하고 D-day, H-hour 이전에 아군 포병과 대대의 박격포, 그리고 항공폭격으로 적의 방어를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돌격중대의 기동속도를 배가시키기 위해

10) 지역 명칭 중 송(Song)은 베트남어로 강을 뜻한다. 따라서 '송꾸아다이'는 꾸아다이 강, '송호이'는 호이 강으로 번역될 수 있다.

배낭은 메지말고, 탄약은 1기수만 휴대하고, 1식분의 식량(C-Ration)은 주머니에 휴대하도록 지시하였다. 기타 전투원의 날렵한 기동을 위한 경량화 조치는 각 중대별로 중대장 책임하에 이행토록 하였다.

통신 수단은 여단 지휘망, 대대전술 지휘망, 포병-항공지원망만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기타 통신망의 무전기는 안테나를 뽑지 않도록 지시되었다. 중대, 대대의 기동간 무전기 안테나 숲(중대 : 7개, 대대 : 12~14개)은 적에게 아군 지휘소를 알려주고, 나아가서 아군 공격기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대장은 공격명령을 하달하고, 특히 제11중대와 미 해병 전차소대의 공격준비 상황을 확인 후, 여단 포병의 우선 순위를 직접 확인하였다. 대대전술지휘망을 제외한 모든 통신망의 교신은 1968년 2월 5일 20:00시부터 2월 6일 07:00의 공격시점까지 차제하도록 지시하였다.

(2) 공격 개시: 2월 6일 오전의 전투 상황

D-day, H-hour인 1968년 2월 6일 07:00, 여단 포병과 대대의 4.2인치 박격포 공격이 개시되고, 일선 공격중대인 제11중대와 제3중대, 전차소대와 대대전술 지휘소의 기동이 정시에 개시되었다. 전차소대는 대대의 주 공격 목표로 기동하는 제11중대 선두에 배치되었다.

공격중대의 기동은 순조로웠다. 09:00시 현재 제11중대와 제3중대는 대대 목표로부터 1km, 호이안 도심 외곽 500미터에 접근하고 있었다. 제11중대의 기동속도는 전차에 선도되고 대대장의 독전으로 제3중대 보다 다소 빨랐다.¹¹⁾

호이안 시가에 공격중대가 거의 도착된 시각에 여단은 제3대대에게 새로운 전투임무를 부여하였다. 새 작전명령의 요지는 “호이안 시가지 공격을

11) 국방부, 앞의 책, 부도 제14호 참조.

중단하고 호이안 시 외곽 2km 떨어진 시 동북부 지역의 적을 탐색하라”는 것이었다.

대대장은 난감해졌다. 일선 공격중대의 기동방향을 90~180도 전환시 적의 방어진지를 등지게 되어 중대를 위협에 빠뜨리게 되고, 또한 새로 변경된 임무지역은 지난 1월 30일~2월 6일, 공격개시 전까지 대대의 전술 지휘소와 제11중대, 제3중대가 위치했던 지역이었다.

제3대대장은 즉각 여단 작전참모를 호출하였다. “대대는 적의 소총 유효사거리 내에 접근했소. 부대를 뒤로 돌릴 형편이 아닙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즉시 응답하십시오.”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다. 대대장은 다급해졌다. 대대장이 여단본부에 대대작전 재량권을 요구하자, 여단으로부터 즉시 승인되었다. 그때의 시간은 09:20이었다. 이제 호이안 시 전투는 대대장에게 맡겨졌다.

제3대대장은 공격중대와 대대의 박격포, 그리고 5대의 전차포를 이용, 목표지역의 적을 제압하면서 호이안 시 북방외곽 개활지에 있는 간이 비행장으로 부대를 우회 기동시켰다. 이 우회기동으로 호이안 시 공설운동장 북방 300~400m(호이안 비행장 동남방 300m) 지대에 전진 배치된 적 보병중대는 그들의 우측방이 무너지면서 시내로 철수되었다. 이때의 우회 기동에서 대대는 적 50여명을 사살하고, 20점의 화기를 노획하였으며, 아군손실은 전무하였다.

제10중대의 차단임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대는 충분한 기동공간을 확보하였다. 11:30 공격중대는 비행장을 중심으로 재배치되고, 12:30까지 점심식사와 휴식이 주어졌다. 이 휴식간에 남베트남 군 소총중대(예비대)도 도착되었다. 전투부대 휴식간에 목표지역은 여단 포병공격과 12쏘티의 항공 폭격이 지속되어 일순간도 적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도록 허용되지 않았다.¹²⁾

12) 국방부, 앞의 책, pp. 339~342.

(3) 2월 6일 오후의 전투 상황

제3대대장은 대대기동계획을 수정하였다, 대대목표(성청 청사)는 변동이 없었다. 제11중대와 제3중대는 직선으로 뺀 도로를 따라 전차를 선두로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기동하고, 예비대는 호이 강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진출하면서 일선 공격부대의 우측방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대대장은 제11중대와 제3중대의 진출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 중대 장악이 용이하였다.

13:00에 대대는 목표를 향하여 기동하였다. 대대는 야간전투를 피하기 위하여 신속히 기동되었다. 대대목표 500m 전방에 이르면서 적의 박격포와 기관총, 그리고 로켓포 등 구조화된 저항이 개시되었다, 그들의 강력한 저항사격으로 공격중대는 공격대행이 흐트러지고 머뭇거렸다, 일선 전차와 공격중대간의 간격이 벌어졌다. 제11중대에 배속된 전차 3대는 적의 로켓포 공격으로 전차의 몸체에 로켓포 명중탄의 흠집이 가득하였다, 명중된 로켓 포탄 자국이 수 십 개씩이었다. 그러나 M48 전차는 끄떡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차소대장은 소총부대가 전차를 즉시 후속 하여 전차가 별도로 분리되는 것을 막아주도록 요청하였다. 대대장은 직접 뛰어나가 제11중대의 진출을 독려하여 전차와 소총 소대의 접속을 이루었으나, 제3중대의 상황은 대대장이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중대장이 조치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보전협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그 팀웍은 만족할만한 것은 못되었다. 제11중대와 제3중대의 전진속도 조절은 힘들었다. 대대예비중대(남베트남군)는 그들의 위치마저 파악되지 않았다.

대대목표 500m 전방에서 격돌한 제3대대와 적의 공방은 치열하였다. 이 격전과 고투(苦鬪)는 전쟁 드라마에서조차 연출되기 어려운 숨막히는 전투였다. 적의 박격포와 기관총, 그리고 로켓포 공격, 특히 기관총과 소총의 사격은 폭우처럼 쏟아져 공격중대의 전방 소총병들은 뜨거운 가마솥 안의 콩이 튀듯이 거리에서 튀었다. 피아간 퍼붓는 포화의 폭음은 고막이 찢기

는 듯했다. 미 해병 전차는 도로 복판에 서서 여전히 응사하고 있었다. 미 해병 전차소대는 대대장의 기대 이상으로 잘 싸워주었다.

성청 청사의 콘크리트 담 벽에 가려진 적의 주력은 대대에 의해서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대기동은 적에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도청청사 담 벽까지 진출을 서둘러야만 했다. 대대장은 건쉽(Gunship: 무장 헬리콥터)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미 해병 제3상륙군 지역의 작전에 모두 투입되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여단포병과 대대 4.2인치, 81밀리 박격포의 포격전으로 대응하면서 공격부대는 16:00시에 겨우 성청 청사 서쪽 담 벽에 도착되었다.

대대는 500m에 불과한 거리를 3시간에 걸쳐 진격하였고, 5명의 부상자(제3중대:2명, 미 해병:3명)를 냈다. 그러나 적의 손실은 파악할 수 없었다. 성청 청사 국기계양대에는 북베트남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성청의 담 벽은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담 벽으로 전차의 차체로 밀어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대대는 적과 담 벽을 사이에 두고 밀착되어 여단포병지원마저 어려워졌다. 다만 대대박격포만이 공격에 운용될 수 있었다.

대대는 목표에 도착되었으나,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목표를 점령하고 정리할 수 없었다. 대대장은 몇 개의 대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공격대안은 돌격중대로 하여금 현 위치에서 적을 고착시키고, 전차와 예비중대(남베트남군)로 하여금 남쪽에 나있는 청사정문으로 진입하는 대안이었다. 이 대안은 병력의 큰 손실이 예상되고, 남베트남 군 중대의 대대 장악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았다. 둘째 대안은 차단부대인 제10중대로 하여금 동서로 연하는 도로를 따라 동에서 서로, 대대공격 방향의 역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대대장은 두 번째 대안을 2월 7일 여명에 실행할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 제10중대장에게 공격 임무를 부여하였다. 동시에 제11중대와 대대 예비인 남베트남 군 중대는 성청 청사 남쪽 정문으로 진입하고, 제3중대는 현 위치(성청 청사 서쪽 담벽)에서 적을 고착시키도록 하였다.

대대는 17:00, 당일 공격중대의 전진을 유보하고, 적의 야간 역습에 대비

하였다. 대대는 2월 6일 23:00, 작전 명령을 각 중대에 시달하였다. 특히 야음간에 전투를 자제하고, 중대 자체 방호에 주력하도록 명했다. 야간에도 대대의 박격포 공격은 지속되었다. 하지만 20:00이후 적의 조직화된 대응 사격은 없었다. 20:00이후 갑작스러운 적의 침묵은 아군에 대한 역습 징후로 보고 특히 대대예비 중대의 대비를 당부하고, 적의 역습시 전차 기동계획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일몰 전에는 대대의 기동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재보급이 어려웠다. 22:00에 겨우 식수와 석식이 보급되고 탄약이 재 보급되었다. 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밀착되어 피아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밀리면 그것은 바로 끝장이었다. 피아간의 전투는 정녕 기(氣)싸움 같았다. 다만 대대의 박격포 공격은 아군의 응원단처럼 여겨졌다. 간간히 성청 청사 상공에서 작렬하는 여단 포병의 조명탄은 적병의 기를 꺾고 반대로 대대 전투원의 사기를 양양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대의 4.2인치, 81밀리 그리고 중대의 60밀리 박격포는 사격진지를 바꿔가면서 계속 성청 청사 내에 포탄을 퍼부었다. 청사 내에 고착된 적의 박격포 공격은 없었다. 간간히 일어나는 적의 스나이퍼(저격)의 공격이 전부였다.

당일 23:00 이후 대대장은 또 하나의 고통거리를 맞게 되었다. 공격중대의 소대원들이 졸거나 잠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야간 전투에 능한 적에게 역습의 호기가 될까봐 노심초사하였다. 대대장과 중대장들은 소대원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뛰어다녀야만 했다. 제3대대는 9일째 전투를 지속하면서 들판에서 뒹굴었다. 눈을 뜨고 있게 하는 묘책이 없었다.

(4) 2월 7일 전투 상황과 시가지 점령

1968년 2월 7일 05:00, 공격이 재개되었다. 제10중대는 대대의 4.2인치와 81밀리 박격포 지원에만 의존되었으나, 신속하게 기동하여 07:00 이전

에 성청 청사 동쪽 담 벽에 도착되었다. 07:30, 제11중대와 예비중대는 전차를 앞세워 성청 청사 정문으로 진입하였다. 청사 내의 적은 공격중대에 의해서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08:00, 제3중대와 대대전술지휘소가 성청 청사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대대장은 여단장의 승인을 받아 공격 전투를 10:00 정각에 종결하였다. 제3대대의 호이안 시 탈환으로 성청 청사 국기 계양대에는 북베트남기 대신에 남베트남공화국 국기가 계양되었다. 호이안 시는 평온을 되찾게 되고, 동서로 연하는 국도(538번)가 개통되었다.

호이안 시까지 전투 결과 적 100여명이 사살되고, 6명(장교 1명 포함)의 포로가 획득되었다.¹³⁾ 이 전투에서 북베트남군 포로를 생포함으로써, 호이안 시를 강점했던 적은 북베트남군 제2사단 제1연대의 예하 대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사 내에서 노획된 병기는 경기관총 8정을 포함, 로켓트 포와 소총 34정 그리고 다량의 북베트남군 문서였다. 따라서 1968년 2월 6일~2월 7일간의 전투 결과는 적 사살 150여명, 포로 6명, 경기관총 8정을 포함한 화기 노획 54정, 그리고 다량의 북베트남군 문서 노획이었다. 반면에 아군 피해는 전사 3명, 부상 5명이었다.

그리고 당일 12:00, 사이공 주재 기자단 30여명이 도착, 취재에 열기를 띠고 있었다. 그들의 인터뷰 요청으로 대대장은 입이 10개라도 부족하였다. 작전 종료후 대대장은 미 해병 전차소대와 남베트남 군 중대의 배속을 해제하였다. 팜남 성 성장(Tin 중령)이 11:00경 성청 청사에 도착하였으며, 그의 지원 요청에 따라 대대장은 제3중대에 성청 청사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제10중대는 그들의 진지로 복귀시켰다. 제11중대는 북베트남군 포로와 노획된 화기를 앞세워 시가를 개선 행진하여 비행장에 집결시켰다. 제11중대는 비행장에 재배치되고 대대전방지휘소는 성청 청사 내에 개설되었다. 성청 청사는 행정 청사와 군사 청사로 구분되어 있었다. 군사 청사에는 방카 시설이 되어있었다. 이 방카에서 성장과 면담간 “대인 레이더가 미군 부대에 실전 배치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벽에 걸

13) 국방부, 앞의 책, 호이안 전투 베트남공 포로 및 노획 물 사진, p. 340.

려 있는 대형상황관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또 한 번 놀랐다.

상황관에 표시된 북베트남군·베트콩부대의 위치와 전투서열이 청룡부대에서 알고 있는 상황과 판이하게 달랐다. 그 걱정은 1968년 구정 직전에 미 해병 제3상륙군 사령부와 남베트남 육군 제1군단 본부에서 확인하여 전파된 것이었다, 이는 적 상황을 전파함에 있어서도 부대간에 차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는 아군간에 적의 상황을 전파함에 있어 차별이 있어야 하는지 분개하였다. 미군 장군들이 청룡부대 방문시 첫 의전절차인 부대 브리핑에서 적정 설명이 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제스처를 지어 보이던 모습이 떠올랐다.

(5) 시가지 점령 후 방어를 위한 조치

반격작전 종결과 동시에 대대장은 여단으로부터 “꽝남 성 성장과 협의하여 호이안 시를 방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대장은 성 청사 내의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대대의 급편방어를 지시하였다. 남베트남 군 1개 APC 중대가 꽝남 성 성장의 예하에 추가로 배치되었다.

상황판단결과 대대장은 호이 강을 중심으로 3개의 적 예상 침투로에 여단포병과 대대의 박격포 살상지대를 설치하여 우세한 화력으로 조기에 적을 제압하고, 침투된 적을 강력한 예비대(제11중대와 남베트남 군 1개 APC 중대)로 격파하는 방어개념을 수립하였다. 제3중대와 남베트남 군 소총중대는 성청 청사를 중심으로 거점방어에 투입되었다.

이 작전개념은 성장과 여단본부에서도 동의해 주었다. 이 작전개념은 즉시 국·영문으로 작성되어 여단본부와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다. 이 작전개념에 따라 호이안 시 방어계획은 구체화되었고, 24시간 이내에 첫 방어연습을 실제로 이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북베트남군의 호이안 시 재탈환을 위한 공격 첩보는 계속 나돌았고, 그 첩보는 시민사회에도 알려져 시민들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듯 했다.

대대장은 호이안 시 방어에 자신이 있었다. 적의 침투 예상 루트는 도시 남단의 호이 강 연안임이 자명해졌고, 공격시간은 강물이 빠지는 간조 시간대였다. 따라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강변에는 은밀하게 조직된 경계체제가 운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적을 속이는 매복조가 호이 강 연안에 운영되었다. 그것은 어둠이 시작되는 일몰시간대에 소규모의 전투경찰대가 탐색 경찰간 1개 화력조(4명) 내지 1개 분대(13명)규모의 매복조를 지정된 지점에 묻어 두고(잔류시키고) 나오는 것이다. 그 매복조는 임무를 마치고 철수시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게 어둠이 걷히기 전에 지정된 통로로 철수하는 것이다.¹⁴⁾ 이 호이 강변의 매복조 운영은 미군 남베트남 군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대대장은 호이강·쑤옌하(Xuyen Ha)섬 일대에서 침공하는 적을 괴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적이 안 와주었으면 했다. 그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았고, 호이안 시에서 또 다시 적과 격돌할 경우 적에게 가해질 손실 뒤에 뒤따를 대대의 손실도 예상해야만 했다. 더더욱 몇 일 후면 제3대대의 귀국제대 인원 120여명이 귀국한다. 이들을 살려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나 자신의 처자 생각이 몽클하게 일어났다.

제3대대 전술 지휘소가 개설되어 있는 성청 청사 지하 방카는 공간이 협소하여 다소 불편하였다. 대대장은 성장의 양해를 구하고 2월 7일 20:00에 제11중대가 재배치 되어있는 비행장으로 대대전술지휘소를 이동시켰다. 대대전술지휘소가 비행장으로 이동되는 저녁시간대에도 시민들은 가구를 나르고 집안을 청소하느라 분주한 듯 했다. 대대장은 성장과 협의하여 성청사 내에 배치되었던 제3중대 마저 2월 8일 08:00, 비행장 지역으로 재배치하였다. 전투부대가 시 외곽 지역으로 이동됨으로써, 도시의 평화무드도 살리고 제한된 시설물 내에 갇혀 있는 중대도 활기를 찾게 되었다.

2월 8일 10:00, 제3대대장은 대대 지휘관(남베트남 군 중대장 포함)회의

14) 청룡부대는 추라이 지역에서 이 같은 잔류매복의 효과를 확인한바 있었다.

를 성 청사 회의실에서 소집하고 성장도 초청하였다. 회의에는 팡남 지역의 미 MACV 책임자도 참가하였다, 회의 주제는 호이안 시 방어계획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충분히 이해하는 듯했다. 성장은 남베트남 군부대의 지휘권을 자기에게 맡겨 달라는 제안을 해왔다. 대대장은 전투가 개시되면 한국군 대대장의 지휘하에 들어온다는 조건하에 동의해주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미 MACV 책임자는 피난민 처리문제를 제기해, 성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들은 피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갈등이 있는 듯 했다. 그들의 피난민 수집·보호 대책은 MACV 책임자보다도 성장의 입장이 더 온건하였다. 그 논쟁을 대대장은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하였다.

대대 작전회의의 결정에 따라 2월 8일 22:00, 방어연습은 중대기동을 자제하고 그 중대의 표본으로 1개 화력조(소총수 4명)만 실제 기동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대대의 호이안 시 방어계획의 보안(保安)을 위해 이루어졌다. 실험결과 대대예비대의 적 침투 예상지역진입은 예측보다 30분이나 늦었다. 중대의 이동소요시간을 줄이는 작업이 뒤따랐다. 이 연습에서 남베트남 군 APC중대의 기동소요시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2월 9일 10:00, 대대장은 여단을 방문, 여단장에게 구두로 상황(호이안 시 반격 전투 및 방어계획)을 보고하였다. 여단장은 만족해하고, 전투를 치하하였다. 그 자리에서 대대장은 여단장에게 호이안 시 반격전투에 참가한 전 전투원의 1계급 특진을 상신하였다. 그리고 최소한 제11중대장(대위 구본호), 제10중대장(대위 윤춘웅), 제3중대장(대위 강근암), 대대 작전장교(소령 조한기), 정보장교(대위 남상구), 대대 작전보좌관(중위 이재돈) 이상 6명의 장교에게는 1계급 특진과 태극무공훈장을, 나머지 전투원 전원에게는 무공훈장을, 그리고 미 해병 전차소대 전원에게 특별한 배려를 상신했다. 그리고 그 건의는 여단장에 의해 구두로 즉각 승인되었다.

6. 결론(전투교훈)

(1) 청룡부대의 부대이동

청룡부대는 1965년 푸이호아, 1966년에는 추라이, 1967년 말 호이안으로 이동되었다. 이 같은 부대이동은 해병대의 정치·군사적 위상을 높이고, 해병대의 전통과 기질을 발휘하는데 기여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야전 전투 경험을 축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몇 가지 부정적 측면도 지적된다.

청룡부대는 1966년 추라이 지역으로 이동되면서 주월 한국군 사령관의 작전통제에서 벗어나 미 해병 제3상륙군 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갔다. 그 결과 주월한국군 사령관의 지휘권과 미 해병 제3상륙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부대이동이 북으로 이어지면서 작전의 빈도는 현저히 증가되어, 부대의 인명 손실 또한 필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청룡부대(연대증강)의 병력손실은 사단규모인 맹호, 백마사단을 능가하였다. 청룡부대는 맹호, 백마부대와 지리적 괴리(乖離)로 한국군 부대간 교류협력이 부족하고 부실하였으나, 반면 미 해병 제3상륙군으로부터 얻은 것은 없었다.

(2) 한·미 연합작전의 딜레마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연합군은 미군을 위시하여 대만의 정치 고문단을 포함한 8개국이었다. 그러나, 실제 베트남 전쟁은 한·미·월(남베트남)의 연합작전이었다. 미군과 남베트남 군(軍)간의 관계는 방대한 규모의 미 군 사고문이 남베트남 군 지휘부로부터 하급 제대에 이르기까지 배치되어 불협화음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군과 미군간에는 여러 가지 난

제가 제기되었다.

그 첫째의 문제가 한·미군 간 작전 방침의 차이에 있었다. 즉, 파월 한국군은 작전의 성과(전과)보다 부대의 안전과 인명을 더 중시하였다. 파월 한국군의 인명중시 사념(思念)은 현지 주민 보호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한 인명중시에 관한 상급 사령부의 명문화된 단독 지침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부대의 작전지시서 또는 명령문서 내의 문맥상에 부각되어 있었다. 그리고, 인명중시 사념은 파월 한국군 사령부로부터 보병부대의 소총병에 이르기까지 공유되었다.

반대로, 주월 미군은 작전 성과 중심으로 그 전쟁을 확전시키고 있었다. 1968. 01. 30 구정 이전까지 주월 미군의 작전은 착실한 진척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1967년도의 우군작전은 진척되어 평정지역은 확대되고, 적 전투 기동대대의 약 30%는 전투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될 만큼 적군은 타격을 입고 있었다.

1968년 적의 구정공세를 계기로 미 국방성과 주월 미군 사령부는 PPB 시스템으로 국방관리와 베트남 전쟁을 투시하였다. 그러한 PPB의 관점에서 주월 미군 사령부는 1967년 수준의 배가된 폭격과 출병을 호소하고 있었다. 주월 미군은 병력의 인적 손실과 물질적 손실을 간과하고 전쟁의 종결 시점을 앞당기려 한 것 같았다.

둘째는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 충돌의 문제였다. 1967년 12월 22일, 청룡 제3대대가 미 해병 제3상륙군 제5연대(연대장: 대령 Bone, 이름 미상)의 TAOR 내에 진입되었다. 이때 청룡 제3대대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우군 지휘관의 작전 통제를 수용하는 것은 상식일 수도 있다. 동시에 미군이 다른 주권 국가의 군 부대를 장악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문서 또는 구두로 사전에 충분한 협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상식이다.

당시 청룡부대 본부로부터 수령한 제3대대의 부대이동 작명 제3항에는 여단장의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없고, 미 해병 제5연대장과 청룡부

대 제3대대장은 협조관계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 해병 제3상륙군 사령부나 미 해병 제5연대장으로부터 작전 통제에 관한 문서나 언질이 일체 없었다.

그러나 미 해병 제5연대장은 청룡부대 제3대대를 그의 예하 부대로 간주하려 하였다. 예를 들면, 1967년 12월 12일~1968년 01월 03일, 기간 중에는 매일 작전수행을 강요하였다. 제3대대장은 미 해병대와의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 여단장의 작전지시를 어겨가며 지역 탐색작전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미 해병 제5연대장의 지나친 작전강요와 간섭으로 제3대대장은 미 해병 제5연대장과 여러 차례 충돌하였다. 그리고 1968년 01월 03일, 탄탄(Tan Than 2)마을 지역¹⁵⁾에 대한 VC부대의 공격을 계기로 미 해병 제5연대장과 청룡 제3대대장간의 충돌은 극에 달했다.

탄탄에 위치한 미군의 CAP¹⁶⁾은 1968년 01월 03일 새벽 02:30에 VC 2개 중대에 의해서 유린되었다. 그 CAP 진지는 마을을 포함하고 있어 적에게 가담한 주민폭동까지 발생하여 VC 공격부대는 순식간에 CAP 진지를 휩쓸었다. 이때 제3대대장은 당일 새벽 04:30 미 해병 제5연대장의 반격요청을 받았다. 제3대대장은 여단에 상황을 보고하고, 작전승인을 요청하였다. 여단장의 지시는 “어둠이 걷히는 아침 6시 이전에는 움직이지 말 것”을 못박았다.

제3대대장은 미 해병 제5연대장의 요청대로 반격할 경우, 여단장에 대한 명령 불복종은 물론이고, 다른 2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대대의 야간 전투수행능력은 적보다 취약하고, 반격 목표에 이르는 유일한 기동로 상에 위치한 150m에 이르는 다리를 야간에 건너야 하는 것이었다.

15) Tan Than(2) 마을은 호이안 시로부터 동북방 4km 떨어진 538번 국도상에 위치한 인구 500~1,000여명의 Hieu Nonh 군청 소재지이다. 당시 청룡 제3대대 지휘소로부터 7km, 제3대대 제10중대 진지로부터 3km, 미 해병 제5연대 본부로부터 10km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16) 미·월 지상군 합동군무 초소로 군청 소재지마다 1개씩 군 청사 내에 설치 운용되었다. 남베트남 군 민병대를 포함하는 중대규모의 기구였다.

대대장은 고통스러웠다. 진통 끝에 여단장의 작전지시, 부대의 안전, 그리고 미 해병대의 요청을 절충한 대안은 반격목표지역에 여명(06:00)에 진입하는 것이었다. 대대장은 04:50 제10중대의 조심스러운 기동을 지시하였다. 접근로 상의 교량통과는 대대장의 별명이 있을 때 건너도록 지시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장은 05:10에 제3대대장에게 무선으로 폭언을 퍼부었다. “너를 이곳에서 떠나도록 미 해병 제3상륙군 사령관에게 요청하겠다. 내 명령을 즉각 실행하라!” 제3대대장은 화가 치밀어 제10중대의 출동사실을 덮어둔 채 응수하였다. “내가 당신 부하요? 미 해병대령의 언행이 고작 그거요!”

제3대대장은 분을 삭이지 못한 체로 당일 05:30 작전, 정보 장교만을 대동하고 도로 탐색 없이 통행이 금지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차량으로 질주하여 기동중인 제10중대와 합류하였다. 그리고, 목표지역에는 05:45에 진입하였다. 미군 CAP는 처참하게 유린되어 있었다. 제3대대의 목표지역 사태 수습이 끝난 10:00가 지나도록 미 해병 제5연대장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제3대대에 배속되었던 미 해병 LVT 10대는 일언반구도 없이 당일 오전 중에 미군부대로 복귀되었다. 이는 미 해병 제5연대장의 청룡부대 제3대대장에 대한 보복이었다.

미 해병 제5연대장은 당일 04:50에 청룡부대 제3대대 제10중대가 이미 반격목표지점으로 기동한 사실을 모르고, 05:10에 제3대대장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것이다. 청룡부대 본부와 제3대대간의 전술망을 청취한 그는 당일 06:00 이전에 제3대대가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속단한 듯 했다. 미 해병 제5연대장의 무지는 연합작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제3대대장은 팡응아이 추라이 지역에서 미군과 충돌했던 악몽이 되살아났다. 1967년 7월 14일, 당시 청룡부대는 미 해병 제3상륙군으로부터 “부대 TAOR 내의 바판간(Ba Tan Gan) 반도 연안으로부터 160km 거리에 있는 동(東)중국 해상에 국적불명의 철선이 접근중이다”는 첩보를 접수하였다.

청룡부대는 이를 적의 보급선으로 추정하고 07월 15일 03:00를 전후로 예상 해안에 접안할 것으로 판단하고, 2개 대대로 포위하고 특공 중대의 투입 준비를 완료하였다.¹⁷⁾ 여단의 작전 준비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미 해병 제3상륙군 사령부는 갑자기 미 해병측에서 작전을 수행할 테니, 청룡부대의 작전을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미 해병대의 명분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수직 강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여단 정보참모였던 본인은 미 해병 제3상륙군사령부에서 여단에 파견된 연락 장교(중령, 성명 미상)를 상황실로 불러 부대의 작전준비태세를 알리고, “괴(怪)선박 나포작전은 여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7월 14일 20:00, 제1·2 대대의 기동이 시작된 시각까지 자신들의 뜻을 고집하였다.

여단은 미 해병 제3상륙군 사령부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괴선박의 접안 예상지점 외곽을 그들에게 떼어주는 연합작전을 제안하였던 바, 그들은 7월 14일 22:00에 아슬아슬하게 그들의 뜻을 겨우 포기하였다. 작전 결과 중국제 소총 1,104정, B-40 유탄포 25문, K-53 Y기관총 9정, 50mm 대공 기관포 2문, TNT 다량 등을 노획하였다. 반면에, 부대의 피해는 전무하였다.¹⁸⁾

요컨대, 호이안 지역 판탄(2) 마을의 CAP 반격도 목표지역으로부터 10km에 위치한 미 해병 제5연대는 그들의 헬리콥터에 의한 수직강습으로 청룡 제3대대보다 유효한 작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작전통제권을 빌미로 실속 있고 용이한 작전은 그들의 몫으로 하고, 어려운 전투는 비켜서는 등의 연합작전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17) 국방부, 『과월한국군전사(제3권)』, 전사편찬위원회, 1971, pp. 233~243.

18) 국방부, 앞의 책(제3권), pp. 244~245.

(3) 보병대대의 작전 재량권

보편적으로 전투의 주요 단위(單位)는 중대-연대로 인지되어 있다. 연대와 중대는 군기(軍旗)가 있지만 대대는 군기가 없다. 물론 연대의 관점에서는 전투시 소총중대를 단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전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작전공간이 확대되었다. 보편적으로 일정한 전구(戰區)작전은 사단 단위로 이루어지며, 사단은 보병대대를 단위로 작전한다. 그리고 사단장은 대대기동간 사단의 다양한 관리 통제 수단을 통하여 연대장보다 대대를 용이하게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다. 사단 작전시 특히 공격작전시 작전의 요체는 보병대대(기갑포함)와 포병, 항공부대이다. 이 요체 중 적과 직접 접촉하는 최상급 단위는 보병대대(기갑포함)이다.

전술부대 기동간 지형을 비롯한 기동공간 인지정도, 적과 아군의 피아상황, 특히 중대의 상태를 균형 있게 인지하는 정도는 대대장이 연대장이나 중대장보다 높다. 특히 대대공격 기동시 대대는 전술지휘소가 최소 인원(작전·정보·통신)으로 구성되어 대대전투 지대 내에서 자유로운 기동이 보장되면, 중대장보다 대대장이 일선 소대와 중대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일선 중대를 균형 지어주고, 중대장의 부실을 현지에서 막아 줄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로, 1968년 1월 중순, 제3대대는 호이안 시 서쪽 7km에 위치한 디엔반(Dien Ban)지역 작전시 일선 중대 진출의 불균형은 말할 것 없고, 심지어 1개의 일선중대는 여단 포병 105밀리 TOT(대량 살상지대)지대에 진입되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대장이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중대장의 부실한 지휘를 시정하여 줄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로, 1968년 2월 6일, 호이안 시가지 전투시 적의 진지 300m 전방에서 일선 소대와 전차가 분리되었다. 보병과 전차의 거리는 약 100m였다. 대대전술 지휘소의 대대장은 직접 현지지도를 할 수 있었다. 이때에 관찰 일선중대장의 위치는 대대전술 지휘소보다 300m 후방이었으며 중대

장은 소대와 전차의 분리 사실마저 모르고 있었다.

(4) 소총중대 병력규모와 기동력(기동속도)

청룡부대의 파월 작전시 소총중대장·소대장·분대장 모두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병력 장악이 어려웠다. 당시 중대 인력규모는 224명, 소대는 45명, 분대는 13명이었다. 남베트남전시 청룡부대 제3대대는 1967년 12월 22~1968년 2월 8일 기간 중 대대공격 기동시 소총중대 인력규모를 120명 수준으로 감소·운용하였는데도, 중대장의 중대 장악이 어려워 큰 부담이 되었다.

해병소총중대는 기동시 20kg 가량 되는 무게의 배낭에 방탄조끼와 철모, 그리고 최소 1기수의 탄약과 물통, 대검이 부착된 야전 벨트를 매고 있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단한 작업복에 농구화(운동화) 그리고 소총 한 자루를 매고, 100m 경주에 대비된 듯한 경쾌한 차림의 적과 속도 경주가 될 수 없었다.

호이안 시가지 전투시 피아간의 포격과 소화기 사격으로 소총중대의 전술망(중대-소대간 무선통신)은 무용지물이었다. 중대내의 교신은 육성만이 가능한데, 그것도 5m 거리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중대장은 소대장을, 소대장은 분대장을 통해서 그의 병력을 장악하는 지휘체계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중대장의 중대병력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 규모를 파격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 같은 인력규모 축소는 일선중대의 기동속도를 높이는 기본(근간)이기도 하다. 동시에 일선중대원의 기동간 속도를 낼 수 있게끔 장비를 비롯하여 전투복 군화에 이르기까지 경량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5) 전투의 평가 및 기록 그리고 포상

전투가 종료되면 그 결과는 과학적으로 평가되고 포상은 공정(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값진 전투는 그 희생과 경험이 전력으로 축적되지 못한다. 전투결과에 평가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 중심으로 이뤄지고, 그 기록이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각색된다면, 그 기록은 부대 전력 축적에 유효하기보다 유해로울 수도 있다. 그 평가와 기록은 우직하리만큼 사실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투결과에 대한 상벌은 정직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상벌에 민감하다. 벌을 받을 사람은 냉정하게 징벌되어야 하며, 포상자는 엄정한 포상요건에 맞춰 지정되어야 한다. 훈장을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되거나 개인적 연고에 따라 공적과 관계없는 종사자들에게 수여되고, 반면 전투공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외면당한다면, 그 포상제도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6) 해외파병 전투부대의 전투 동기개발

청룡부대를 중심으로 본 한 면담조사에 의하면 파월 장병의 파월 동기는 이념·신념·애국심보다는 그들이 속한 부대가 파월 부대로 지정되어 어쩔 수 없이 밀려왔거나, 소대장·중대장 등 초급장교는 순서에 따라 파병되었다. 반대로 고급장교의 경우는 경력관리(발전)상 필요 또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였다.

파월 한국군 부대원의 참전동기는 피상적으로 북베트남군·베트콩의 참전동기에 비해 취약하고, 주월 미군보다도 취약할 수 있다. 그러나 청룡부대 전투부대와 북베트남군이 격돌시 그 전투는 대부분 한국군의 승리로 판가름이 났다. 다시 말하면 참전동기는 전투동기 형성에 한 변인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을 낳게 한다.

전투에서 병사들이 잘 싸우게 되는 결정적 변수는 “그 전투원과 동거동락 하는 동료보호, 동료의 기대에 동조하려는 욕구” 그것이 아닐까? 또한 전투원이 야전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명제를 중심으로 참전동기와 전투동기를 비교하면, 전투동기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격전 중에 있는 한 병사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소중한 존재와 가치는 바로 옆에 있는 전우, 그의 동료이다. 동료보호의 자발적 전투동기는 리더십·상부의 명령·군법·군기(軍紀)·정치적 이념 보다 훨씬 강렬하다는 스토워의 방대한 연구서(American Soldier)가 출간된바 있다.¹⁹⁾

베트남전쟁시 한국군 파월부대 장병들은 1년 주기로 교체되었다. 파월되는 장병은 단기간의 베트남전쟁에 적응하는 전투 훈련과정을 거쳐 남베트남으로 송출되었다. 당시 그 훈련과정에 한국군 병사들의 취약한 참전동기를 커버하고 전투력 발휘를 일층 촉진시킬 수 있는 전투동기 부여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료보호·동료간의 유대 강화, 나아가서 상관의 부하보호, 부하의 상관보호(상·하간의 기대에 동조) 욕구를 강화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은 현재 그리고 장래에도 한국군의 전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²⁰⁾

(7) 상하간의 의사소통

제3대대의 작전간 상의 하달 사례로 본인은 1968년 1월 30일(구정) 호이안 전투 직전 2건, 호이안 시가지 전투간에 1건 등 도합 세 번의 걸쳐 여단의 작전지시를 변경해주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승인되었다. 또한 대대의 예하 중대로부터 1건의 요구를 접수하여 수렴하였다.

19) Samuel A. Stouffer, *The American Soldier, Studies in Psychology in W.W.II, Vols 1&2*, N. J. Princeton Univ. Press, 1949.

20) 최철호, 『인사행정론』, 행법사, 1997, pp. 226~239.

이 같은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사례로 1968년 1월 13일, 제3대대는 기존 대대 지휘소 시설지역을 여단본부에 인계하고, 동년 1월 24일 12일간에 걸쳐 신진지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여단의 재이동 지시를 받았다. 재이동이 지시된 지역은 부대의 안전과 기동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지대였으며, 특히 도로가 없는 늪지대로 차량 이동마저 불가능하였다.

새로운 도로를 미 해병부대의 지원으로 개설하려면, 최소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당시 여단본부 상황도 열악하였다. 부대이동으로 여단전체가 어수선하고 구정 휴전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임박한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여단본부에 신진지 재이동을 보류해주도록 건의하였다. 여단장은 대대장의 그 건의를 명쾌히 승인하였다.

두 번째 사례로 1968년 1월 30일, 제3대대 제11중대의 호이안 동북 해안 연안지역(적의 영향권 내 지역) 탐색 작전시 130명의 민간인이 수집되었다. 대대 공격기동간 다수의 민간인(어린이·노약자·부녀자·장애자) 보호는 대대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단본부는 대대가 “그 민간인 보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압력을 대대장에게 가해왔다.

그 같은 압력에 대해 대대장은 민간인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폈다. 대대장은 여단 참모단의 권고를 일축하고, 피난민을 보호하던 제11중대장에게 민간인 보호를 엄명하였다. 여단참모 일행은 그 민간인 처리를 독려하려 두 차례나 헬리콥터로 작전중인 대대장에게 날아왔었다. 대대장은 민간보호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 민간인 처리는 대대장의 소신대로 다음 날 새벽 호이안 시 외곽의 피난민 수용소로 안전하게 이송되었다.

세 번째의 사례로 1968년 2월 6일 제3대대는 호이안 시까지 공격기동간에 여단작전지시 변경으로 적의 거점 500m 전방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되

었다. 대대장은 수정된 작전지시의 취소와 아울러 대대장의 전투제량권을 여단장에게 요청, 여단장의 승인 하에 호이안 전투를 승리로 종결할 수 있었다.

호이안 시가지 전투가 다행히 승리로 종결되어 대대장은 공격간 작전지시 변경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여단장도 일체 언급이 없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도 의아해한다. 당시 호이안 시 반격작전은 1968년 1월 30일, 구정 이후 청룡부대의 최우선 작전 과제였다, 청룡부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공격부대 규모와 공격일정을 비롯한 사전준비가 신중하게 이뤄졌어야 했다.

설사 막강한 적의 방어전투력에 공격기동 대대의 패배가 예측되는 상황 하에서도 적의 거점으로부터 소화기 유효 사거리 내에 진입된 공격기동대대의 180도 역 방향으로 목표변경은 안 된다. 요컨대 작전계획은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치밀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리고 그것이 성안(결정)되면 노도처럼 밀고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 사례로 1968년 3월 20일 10:00, 대대 전술지휘소의 대대장은 제 9중대, 제11중대와 더불어 호이안 시가지 지역으로부터 대대지휘소로 복귀되었다. 대대장은 23일 만에 처음으로 침상에서 잠을 잤다. 대대장은 부대 안전을 위하여 부대 주변 탐색전을 3월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실시하고 있었다. 대대 탐색간 대대장은 제11중대를 방문하였다. 당시 제11중대장은 대대장에게 “나도 살아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였다. 그 호소에 대대장은 난감하였다. 대대장은 침묵하였다. 직답을 할 수가 없었다.

실제 제11중대는 호이안 지역 이동 후 대대내의 다른 중대보다 전투임무가 과중하였다. 여단의 호이안 지역이동 이후 제3대대가 여단에 의해 과중하게 부려진 것과 같았다. 중대장은 그 동안 연속된 전투피로가 누적되어 수척해 보였다. 그래서 대대장은 중대장을 설득하였다. 이번 탐색만 끝나면 중대장의 요구를 받아줄 것을 약속하였다. 중대장은 대대장이 야단치리라는 예측이 빚나갔다는 듯 어리둥절하였다. 대대장의 느낌으로 대대장의 설득이

중대장에게 별로 덕혀들지 않았다. 그러나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좋은 반응을 하려 애쓰는 듯 했다. 그는 소총중대장 근무 7개월로 이미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을 넘기고 있었다. 대대장은 진심으로 미안했다.

이상 4개의 사례처럼 부하 또는 부하집단의 욕구는 분출되고 있었다. 이미 1968년 전투간에도 전투부대 내에서조차 부하들의 의사가 그들의 상부(상관)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하부로부터 위로 분출되는 압력(의견개진)은 이미 증대되었고, 앞으로 더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투부대의 리더십도 재음미됨직 하다.

오늘날 유효한 리더십 이론이 상황론이고, 부하집단은 관리목표 또는 작전목표를 성취하는데 도구(道具)로 보는 과학적 관리 이론은 1890~1920년대에 이미 종말을 고하였다. 1930년대 이후는 관리자(지휘관)는 부하집단을 목표수행의 도구로만 보지 않고 그들은 보호대상이며, 부하들의 기대에도 동조하여 그들의 동참을 얻어내는 것이 유효하다.²¹⁾

이 상황론이 비록 산업사회를 대상으로 발전된 것이지만, 지휘자가 부하집단을 중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부하집단은 지휘자를 그들의 보호자로 인지하며, 그를 신뢰하고 존경함으로써 지휘자의 기대에 희생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군부대의 리더십 이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21) 최철호, 『인사행정론』, 행법사, 1997, pp. 195~225.